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96 호

2024년 11월 27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11 월호 요약
2.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ROUND III 참여 기업 모집 안내(~12/20)
3. TGE Round 5 결과(~11/5)
4.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 결과(~11/5)
5.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7 차 워크숍 결과(10/18)
6. 2024 인권 · 반부패 통합 실무그룹 3 차 미팅 결과(10/16)
7. 2024 년 2 차 ESG 멘토링 결과(~10/16)

■ 본부 소식

1. 2024 UNGC Leaders Summit 결과 공유
 - 혁신으로 만드는 변화: SDGs 를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
 -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글로벌 지침
 -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생성형 AI: 의도와 영향력 간의 격차 해소
 - 권력의 공유와 이동: 세대간 대화
 - 모든 단계에서의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향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여정
 - 기술 슈퍼사이클과 공동의 미래를 위한 약속

2. UNGC, COP29 계기 제 12 차 '기후를 위한 배려' 고위급 회의 개최
3. ABLC, COP29 계기 아프리카 민간 부문 기후행동의 진전 논의
4. 오션스 20, 해양 스텐어드십을 위한 G20 행동 촉구 성명 발표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두산퓨얼셀

■ UNGC & 회원사 뉴스

1. LG전자, VR·AR·로봇으로 안전 교육...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2. 바다엔 잘피 숲, 도시엔 꿀벌... 생태계 복원에 진심인 KB금융
3. SK, 그룹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이사회 역할 '업무 관리·감독'으로 재정의
4. 현대차, 성평등·다양성 존중 조직문화 강화한다
5. 수자원공사, 국내 최초 RE100 달성 눈앞 '탄소중립 실현'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11 월호 요약



VOLUME 50 | November 2024

[웹에서 보기](#)

Monthly Insights



■ 목 차 ■

1. 2024 UNGC 리더스 서밋 하이라이트
 - 1) 기술 슈퍼사이클과 공동의 미래를 위한 약속
 - 2)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생성형 AI: 의도와 영향력 간의 격차 해소
 - 3) 2030을 향한 가속화: 지역사회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
 - 4) 혁신으로 만드는 변화: SDGs를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
 - 5)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행동 수칙
 - 6) 권력의 공유와 이동: 세대간 대화
 - 7) 모든 단계에서의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향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여정
2. UNGC, 제79차 유엔총회 기간 5대 주제별 보고서 발간
3. ESG 최신 동향
 - H&M 그룹 및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공급망 인계이지먼트 사례
 - CSDDD: 기업 지속가능성과 컴플라이언스
4. 한국협회 소식 | 본부 소식
5.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이번 먼슬리 인사이트는 지난 9 월 뉴욕에서 개최된 ‘2024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24)’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또한 제 79 차 유엔총회 기간 발간된 5 대 주제별 보고서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트렌드와 미래 향방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2024 UNGC 리더스 서밋 하이라이트

지난 9월 24일 뉴욕에서 ‘2024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24)’이 열렸습니다. 본 행사에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 유엔 등 리더 약 천 명이 참여하여 책임 있는 기업 관행, 혁신,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전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포워드 패스터(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 발족 1주년을 맞아 성평등, 기후행동, 생활임금, 수자원 회복탄력성, 금융 및 투자 등 5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민간 부문의 노력을 점검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전체 세션, 분과 세션, 네트워킹에 참여했으며 각각의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과 같습니다.

- **기술 슈퍼사이클과 공동의 미래를 위한 약속**
 - 기술 슈퍼사이클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기회 창출을 위한 전략의 중요성 논의
-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생성형 AI: 의도와 영향력 간의 격차 해소**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로부터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기업에 가치 창출 지원 방안 제안
- **2030을 향한 가속화: 지역사회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
 - 글로벌 도전 과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해결책 마련 방안 조명
- **혁신으로 만드는 변화: SDGs를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
 - 환경문제, 사회적 불평등, 기술적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SDGs 실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및 해결책 소개
-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행동 수칙**
 - 글로벌 공급망 내 기업의 책임있는 구매 관행 및 환경 스튜어드십 구축 관련 모범 사례 조명
- **권력의 공유와 이동: 세대 간 대화**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대 간 교류에서의 깊은 포용과 권력 공유의 중요성 논의
- **모든 단계에서의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위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여정**
 - 기업이 재무전략을 기후행동과 강력하게 연계하는 방법 제시

본문에서는 2024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의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을 조명합니다. ▲기술 슈퍼사이클과 공동의 미래를 위한 약속,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생성형 AI, ▲2030을 향한 가속화, ▲혁신으로 만드는 변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행동 수칙, ▲권력의 공유와 이동,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주제로 다루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가속화 전략을 소개합니다.

UNGC, 제79차 유엔총회 기간 5대 주제별 보고서 발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을 맞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관련한 5대 주제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AI의 변혁적 잠재력부터 지속가능금융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등 보고서들은 현재의 트렌드와 미래 향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 79 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을 맞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발간한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생성형 AI, ▲포워드 패스터(Forward Faster) 출범 1년 후를 살펴보다, ▲민간 부문의 SDGs 가속화를 위한 정책 지원 도구, ▲지속가능금융의 혁신 가속화, ▲플랑크톤 선언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트렌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SG 최신 동향



H&M 그룹 및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사례

[자세히 보기](#)



CSDDD: 기업 지속가능성과
컴플라이언스

[자세히 보기](#)

<ESG 최신 동향>에서는,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서 제시한 H&M 그룹 및 세일즈포스의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사례를 다루며 기업의 Scope 3 관리 노력을 알아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7 월 발효된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주요 내용 및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TCFD, TNFD에 이은 TISFD, 불평등과 사회 다룬다...사회 공시 표준 나오나

○ 지난 9월 공식 출범한 '불평등 및 사회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ISFD)'는 불평등 및 사회 관련 영향, 의존성, 위험, 기회에 대해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예정이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재무적 리스크로 다루는 TISFD 프레임워크는 EU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과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등 글로벌 공시 기준의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TISFD는 프레임워크의 베타 버전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정교화한 후 첫 번째 버전을 2026년 말 발간할 예정이다.

끝으로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에서는, ▲TCFD, TNFD 에 이은 TISFD, 불평등과 사회 다룬다...사회 공시 표준 나오나, ▲기후대응 '실탄' 중요...COP29 핵심의제는 '기후금융', ▲플라스틱 소송 세계적 확산세, 페트병이 글로벌 기업 법적 리스크 높여 등 ESG 동향 관련 주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조연경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67)

자세히 보기

2.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ROUND III 참여 기업 모집 안내 (~12/20)



The banner features the UN Global Compact logo on the left, followed by the text 'BUSINESS & HUMAN RIGHTS ACCELERATOR' and a colorful circular graphic. To the right, it says '본 프로그램은 Shift와 함께 합니다.' and 'Shift' in a large, bold font. Below this, the Korean title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is displayed, followed by the subtitle ':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에서 이행으로'. A blue button with a white arrow and the text '참여 신청 바로가기' is positioned below the subtitle. The right side of the banner is a collage of images showing diverse people in various professional and social settings, including a woman in a pink shirt, a man in a grey shirt, and a woman in a yellow shirt.

전 세계 50개국의 지역협회에서 운영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Business & Human Rights Accelerator)**는 중대한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지속적인 실사 절차 개발 및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해 참여 기업의 인권 여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6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워크숍 및 온디맨드 세션을 통해 인권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고유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총 네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UNGC 아카데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네 번의 온디맨드(On-demand) 세션, 국내 참여 기업과 함께 진행되는 워크숍, 그리고 프로그램 파트너인 Shift에서 진행되는 여섯 번의 글로벌 심화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UNGC 회원사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모집 마감일은 **12월 20일(금)**입니다.

참여 혜택

참여사는 자사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파악하며, 노력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실제 및 잠재적인 부정적 인권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 이러한 결과를 다양한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조치와 절차의 효과 및 결과를 추적합니다.
- 인권실사의 법제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표준과 부합하는 운영 방식을 이해합니다.
- 영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통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취한 조치와 결과를 공개합니다.
- 동료, 유엔 파트너 및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권 여정을 지원하고, 인권실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합니다.

참여 대상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이거나 가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권 영향을 파악하고, 가치사슬의 핵심 영역을 더 주목하여 살펴볼 의지가 있습니다.
- 액셀러레이터 활동 및 동료 학습 세션(대면 워크숍) 등에 참여할 담당자 2명(지속가능성, 인사, 공급망 관리 등 관련 부서 소속)
- 액셀러레이터 발전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임원급 '챔피언' 지정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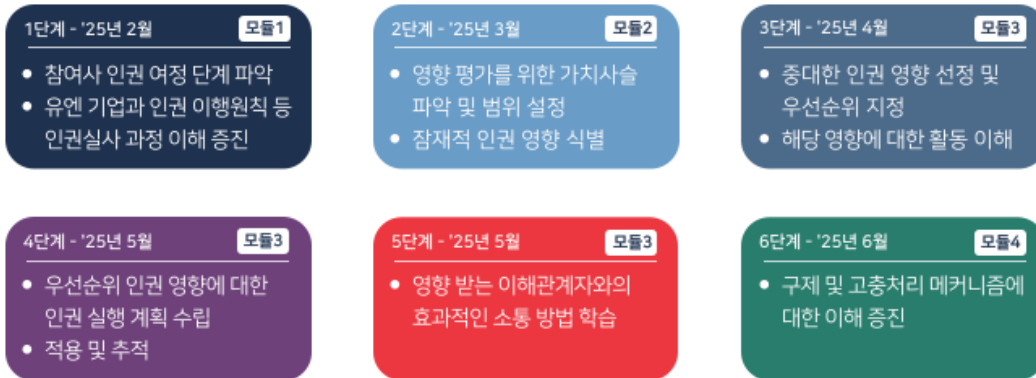
프로그램 일정(안)

내용	참여 기업 모집	kick-off 및 OT 세션	모듈 1 ~ 4	수료식
일정	'24년 9월 ~ 12월 20일(금)	'25년 2월 중	'25년 2월 ~ 7월 (프로그램 내용 참조) ※ 대면 워크숍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5년 6월 또는 7월

프로그램 내용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UNGC 아카데미 플랫폼 내 온디맨드 세션 4회 및 글로벌 심화과정 6회 등), 오프라인(Kick-off 및 OT 미팅 1회, 대면 워크숍 3회)



※ 프로그램 일정 및 모듈별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안일곤 과장 (070-4327-5057, aig@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3. TGE Round 5 결과(~11/5)

□ 기 간: 2024년 7월~11월

* [런칭간담회](#)(‘24.7.25), 1 차워크숍(‘24.8.27), 2 차워크숍(‘24.9.25), 3 차워크숍(‘24.10.23),
수료식(‘24.11.5)

□ 장 소: 바비엡 2 교육센터

□ 참여사(10): 넥센타이어, 두산퓨얼셀, 두산, 세아상역, 애큐온캐피탈, HS 효성첨단소재, LX 세미콘, MYSC,
포스코, 한국콜마 총 10개 회원사 총 21명 수료



TARGET
GENDER
EQUALITY



타겟 젠더 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TGE) 프로그램은 여성 대표성 및 임원 비율증진을 통한 기업내 성평등 구현 가속화를 위해 성평등 목표 설정, 구체적인 액션 플랜 수립 등 여성 역량강화 원칙(WEPs)의 실행에 필요한 기회와 지식을 제공하는 5개월간의 프로그램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난 2020년 TGE 첫 번째 프로그램을 런칭한데 이어, 2024년 11월 다섯 번째 라운드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자 6개의 모듈에 기반한 온디맨드 세션 그리고 총 세 번의 국내 워크숍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모듈 구성]

모듈 1(기초와 체계)는 성별 격차와 양성 평등에 대한 기업 사례를 알아보고 국내외 현재 성 평등 추세와 기업 현황을 파악합니다.

모듈 2(성과 분석)은 회사의 현재 성 평등 격차와 발전 기회를 알아보며 향후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성별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모듈 3(정책과 활용)은 젠더 관점을 적용하여 정책을 수립해보고, 그 과정 전반에 걸쳐 편견을 없애고, 성 평등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해합니다.

모듈 4(목표 설정)은 성 평등 목적과 세부 목표를 설정해보고, 기업내 전사적으로 적용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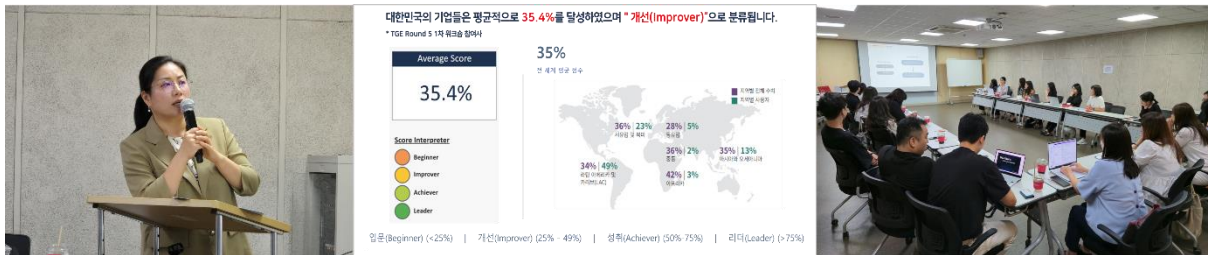
모듈 5(성과 조사)는 성 평등 성과를 추적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PI)를 보고, 성과에 대한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전반적인 성 평등 전략에 대해 소통합니다.

모듈 6(시연)은 각 기업의 성 평등 목표를 발표하고, ‘세계 여성의 날’ 활용 등 의미있는 활동을 고려하고, 대외적으로 공유합니다.

[국내 워크숍]

국내 워크숍에서는 온디맨드 모듈을 학습한 후, 그 내용을 되짚어보고 국내외 글로벌 젠더 및 다양성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실제 전 세계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성평등 이행 방안 전략을 학습했습니다. 또한, 현장 서베이 툴 ‘멘티미터’를 이용해 성평등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서로 공유해보며 참여사들의 현황과 인식을 점검하고 이해를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1 차), UNGC 이은경 실장(2,3 차)의 강의를 청취한 뒤, 참여사들은 자사 성평등 현황을 공유하며, 사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 차 워크숍('24.8.27): 젠더&DEI 국내외 동향 브리핑



첫 워크숍에서는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젠더&DEI 국내외 동향을 주제로 유리천장지수, 성격차 지수 등을 통한 기업내 성평등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ESRS, ISSB 등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의 젠더 이슈 확장에 대해 언급하며 기업이 이사회내 성별다양성, 근로자 성별비율, 성별 임금비율 등 제고를 위해 △직장내 일과 생활 균형의 보장, △인식제고 교육 및 훈련, △성인지적 실사 제도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연경 UNGC 한국협회 과장이 TGE Round 5 1 차 워크숍 참여사가 제출한 여성역량강화원칙 진단 툴(WEPs Tool)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사들의 여성 대표성 현황을 공유하면서, 리더십, 개인, 기업, 지역사회내에서의 성별 다양성 강화 필요 부문에 대해 진단하고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여사 실무진들은 각 기업에서 진행중인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정책을 소개하며 동료 기업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TGE 프로그램 참여한 배경과 임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2 차 워크숍('24.9.25): 성평등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2 차 워크숍은 ‘성평등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주제로, 직장내 다양성 진단 상황 측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멘티미터를 통해 참여사들의 성평등 목표 측정 매트릭스 수립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효과적인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이니셔티브의 핵심 성공 요소로 △조직의 목표와 및 가치와 연계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고위급 리더의 참여가 필요하며,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 광범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뿐 아니라, △책임 및 투명성 △임직원의 참여와 문화의 변화 △진전 상황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은 여성 임직원 비율 중장기 계획 및 리더십 참여 제고 및 내부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 3 차 워크숍(24.10.23): 진전 상황 측정 및 커뮤니케이션



마지막 3 차 워크숍을 통해 성평등 목표달성 진전 상황을 측정하고,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멘티미터를 통해 성평등 및 DEI 관련 KPI 수립과 DEI 정책에 대한 진전 상황 공시가 왜 중요한지 참여자들의 의견을 우선 나눠보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진전 상황을 측정이 동반되어야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학습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대표성 △고용 △승진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등 성평등 측정 매트릭스를 적용한 다양한 글로벌 사례를 알아보았으며, 효과적인 DEI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리더십과 직원 참여 제고, 의사소통 및 책임과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여성역량강화(WEPs) 7 대 원칙 △리더십 △직장내 모든 부문에서의 성평등 △복지 및 안전 △경력 발전 및 훈련 △지역사회내 성평등 △측정 및 보고에 기반한 성평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성평등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GE Round 5 수료식]



지난 5 개월간 진행된 총 4 차례(런칭간담회 1 회, 워크숍 3 회)의 워크샵 및 6 개 모듈 기반 온디맨드 온라인 수료 후, 국내 최대 규모의 지속가능성 컨퍼런스로 UNGC 한국협회가 개최하는 연례 행사인 ‘코리아 리더스 서밋’ 계기 TGE 프로그램 Round 5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수료사인 넥센타이어, 두산퓨얼셀, 두산, 세아상역, 애규온캐피탈, HS 효성첨단소재, LX 세미콘, MYSC, 포스코, 한국콜마 10 개사 실무진은 성공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으며, TGE Round 5 참여사의 수료 소회 중 우수 사례 일부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공유되고 향후 TGE 모듈 콘텐츠, 본부 성평등 관련 글로벌 이벤트 및 홍보집 반영 등 통해 국내 기업의 성평등 아젠다 추진 노력이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될 예정입니다.

TGE Round 6 참여사는 내년 3 월부터 모집 예정이오니, 본 프로그램을 비롯한 협회의 여성 역량 강화 및 기업 내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향후 UNGC 한국협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조연경 과장(070-4327-9767, ykcho@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4.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 결과(~11/5)

□ 행사: 기후 앰배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

□ 기간: 2024년 6월 17일 - 11월 5일

□ 주요내용: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limate Ambition Accelerator, CAA) 프로그램은 1.5°C 경로와 일치한 과학기반 감축목표 설정과 넷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5개월간의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난 2022년 CAA 프로그램을 첫 번째 론칭한데 이어, 올해 세 번째 라운드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온디맨드 세션, 해외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세션, 국내 전문가 세션 등으로 구성되어, 총 9개의 온디맨드 세션, 7개의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료 기업(가나다 순): △금호석유화학, △네이버주식회사, △넥센타이어, △(주)두산, △두산퓨얼셀, △DRB 동일, △DL 이앤씨, △DL 케미칼, △마스턴투자운용(주), △세아상역, △아이이에스지, △애큐온캐피탈, △(주)LG 유플러스,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LS 일렉트릭, △LX 세미콘, △LG 디스플레이, △코스글로벌, △코스맥스, △포스코, △한국콜마, △한국평가데이터(주), △현대제철, △힐라홀딩스 총 25개사



CLIMATE
AMBITION
ACCELERATOR



I. 모듈 구성

- 모듈 1 온디맨드 세션은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해 소개합니다.

- 모듈 2 온디맨드 세션은,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넷제로 표준 장기목표 등의 내용에 대해 다룹니다.

- 모듈 3 온디맨드 세션은 Scope 1, 2의 배출량 감축 활동과 Scope 3 배출량 관리, SBT 기업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I. 해외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온라인 워크숍



참여자들은 온디맨드 세션을 학습한 뒤, 총 7 번의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WSP 캐나다(William Sale Partnership Canada)와 SBTi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온디맨드 세션을 복습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세션을 가졌습니다. 특히, △GHG 프로토콜 기본 개념(조직 경계(Organizational Boundary), 출자비율(Equity Share), 통제력 접근법(control approach), 운영 경계(Operational Boundary) 등), △Scope 3(15 가지 카테고리 구분법, Scope 3 측정 및 관리를 위한 도구 및 방법론, 공급업체 관리 등),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소개(개념 및 지침 소개, 넷제로 표준 및 권고안, SBTi 서약방법 등), △Scope 1, 2, 3 산정 방법 및 감축 전략(지역기반법/시장기반법, Scope 3 산정을 위한 주요 방법론,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임대자산의 구분 방법 등)의 내용을 주요하게 논의하였습니다.

III. 국내 전문가 현장 워크숍

[GHG 프로토콜 실습 워크숍]



GHG 프로토콜 실습 워크숍에서는 **강한별 UNGC 한국협회 과장**의 “GHG 프로토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발표를 더불어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의 진행으로 GHG 실습 과제 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현업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한 뒤, **전진희 ERM 코리아 컨설턴트**의 과제 답안 도출 및 기업 사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워크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 차 워크숍 결과 공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전문가 워크숍]



국내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신언빈 ERM 코리아 파트너**의 “Scope 3 카테고리별 배출 감축 전략” 발표를 통해 기업의 주요 Scope 3 감축 활동과 카테고리별 감축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고, **송자영 SK 네트워크 파트너**의 “SBTi 승인 사례” 발표를 통해 SBTi 가입 및 목표 검증 대응의 실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사들이 제출한 액티비티 팩 과제에 대해 논의하며 피드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 차 워크숍 결과 공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V. SBTi 섹터별 워크숍

올해 CAA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SBTi 섹터별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섹터별 워크숍에서는 FLAG(산림, 토지 및 농업), 금융기관, 건물 세 가지 섹터에 집중하여 SBTi의 최근 지침과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FLAG(산림, 토지 및 농업) 섹터 워크숍]

SBTi TARGET STRUCTURE & OPTIONS

SCIENCE BASED TARGETS
DRIVING AMBITIOUS CORPORATE CLIMATE ACTION

STRUCTURE
FLAG Targets are in addition to Energy/Industry Targets.

Energy/Industry Target

- Uses existing SBTi methods
- Covers all non-land emissions

FLAG Target

- Uses new SBTi FLAG guidance
- Covers all land-related emissions

OPTIONS
Two pathways have been defined for FLAG.

FLAG Sector Pathway for Demand-Side Actors

Forestry Agriculture Livestock Demand

Commodity Intensity Pathway for Supply-Side Actors

11 Commodities x 26 Reg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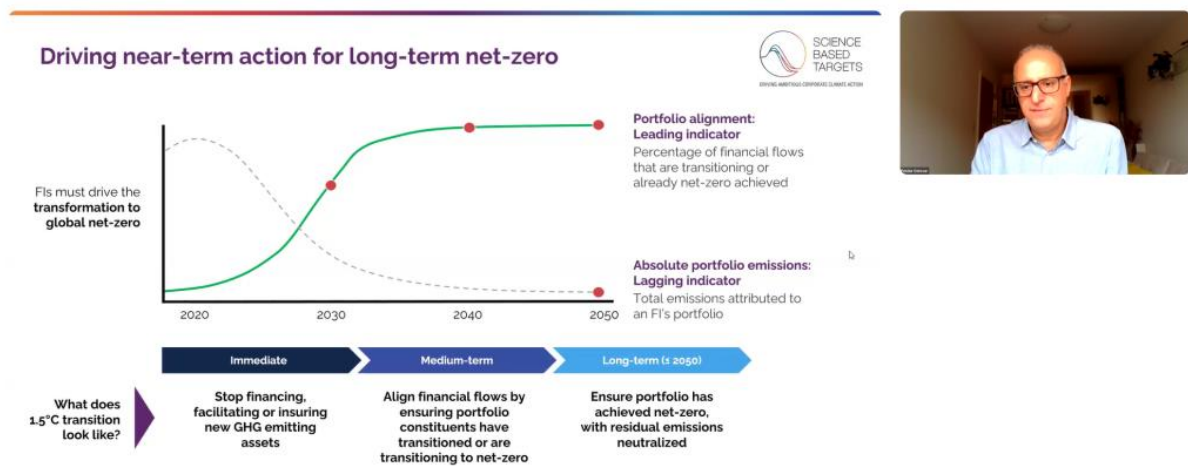
Beef Timber Maize Dairy Rice Wheat Pork Soy Leather Poultry Palm Oil

20

Tereza BICALHO

FLAG 세션에서는 테레자 비칼호(tereza bicalho) SBTi 기후 및 토지 기술 매니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FLAG 배출량을 가진 기업은 FLAG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Non-FLAG 배출량에 대한 SBT 목표와 더불어 FLAG 섹터 감축경로를 통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FLAG 섹터 감축경로는 절대량 감축 접근법(Absolute Contraction Approach)과 상품 원단위 경로(Commodity Intensity Pathways) 두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상품 원단위 경로는 공급 측면의 행위자(Supply-side Actors)를 대상으로 11 개의 주요 상품인 쇠고기, 닭고기, 유제품, 가축, 옥수수, 팜유, 돼지고기, 쌀, 콩, 밀, 목재 및 목재 섬유를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산림 섹터 기업은 목재 및 목재 섬유에 대한 상품 감축경로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기관 섹터 워크샵]



금융기관 세션에서 펜다 오스토바르(Pendar Ostovar) SBTi 금융기관 책임자는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넷제로 경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펜다 책임자는 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높은 배출량을 유발하는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중기적으로는 전환 중이거나 이미 넷제로 수준에 도달한 경제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포트폴리오가 넷제로에 도달하고 모든 잔여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중화(neutralize)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표준은 넷제로 포트폴리오로의 진전을 측정가능하게 하는 행동(Actions), 결과(Outcomes), 영향(Impact)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전환을 감독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후 거버넌스 구축, △고품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통한 금융 활동의 기후영향 정량화,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적절하고 야심찬 목표 설정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물 섹터 워크숍]



건물 세션은 **아일라 딘케이(Ayla Dincay) SBTi 기술 매니저**가 진행했습니다. 아일라 매니저는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건물 섹터의 기업은 주거용 건물 감축경로, 서비스용 건물 감축경로 또는 공통섹터 감축경로를 사용하여 절대량 또는 원단위(intensity)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이 탄소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탄소 리스크 부동산 모니터(Carbon Risk Real Estate Monitor, CRREM) 감축경로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방법론이며, 이는 매년 온실가스 집약도를 평방미터당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감축경로는 여러 가지 건물 유형을 다루고 있지만, 모든 국가의 상황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V. CAA 수료식



마지막으로, 11/5(화)에 개최된 2024 Korea Leaders Summit(KLS)에서 CAA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CAA 프로그램 ROUND III 수료기업은 총 25 개사이며 이 중에서 △금호석유화학, △네이버주식회사, △넥센타이어, △(주)두산, △두산퓨얼셀, △DRB 동일, △DL 이앤씨, △DL 케미칼, △세아상역, △아이이에스지, △애큐온캐피탈, △(주)LG 유플러스,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LS 일렉트릭, △LX 세미콘, △LG 디스플레이, △코스글로벌, △코스맥스, △포스코, △한국콜마, △현대제철, △힐라홀딩스, 총 23 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2025 년에도 우리 기업의 과학기반 감축목표(SBT) 설정 지원을 위한 CAA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장한별 과장, 최하은 연구원 (070-4327-9768, 02-6954-2148,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5.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7 차 워크샵 결과(10/18)



□ 일시: 2024년 10월 18일(금), 14:00-16:30

□ 장소: 바비엔 2 교육센터 3층 Conference Room

□ 주요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월 18일(금)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limate Ambition Accelerator, 이하 CAA) 참여사 대상 <7 차 국내 전문가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17개 기업에서 약 22명의 실무진이 참석한 본 워크샵에서는 Scope 3 감축 전략을 소개하고, SBT 목표 승인 국내 기업 사례 및 참여사별 액티비티 팩 내용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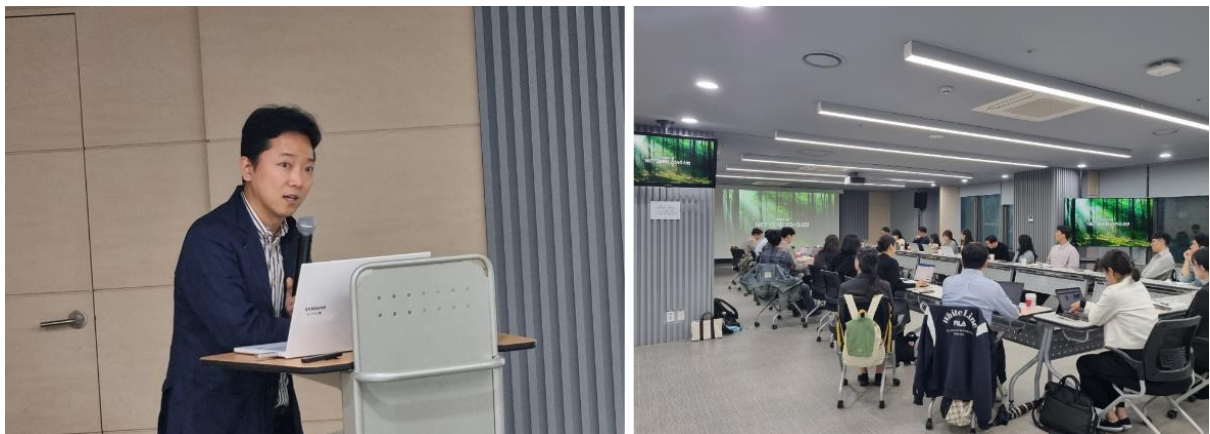
- 참석기업(가나다순): 금호석유화학, 넥센타이어, (주)두산, 두산퓨얼셀, DRB 동일, DL 이앤씨, DL 케미칼, 마스턴투자운용, 세아상역, i-ESG, 애큐온캐피탈, SK 하이닉스, LS 일렉트릭, LG 유플러스, 코스맥스, 한국콜마, 힐라홀딩스

I. Scope 3 카테고리별 배출량 감축 전략: 신언빈 ERM 코리아 파트너



ERM 코리아 신언빈 파트너는 <Scope 3 카테고리별 배출량 감축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소개한 후, 기본 표준부터 업계별 지침까지 진화하고 있는 Scope 3 인벤토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GHG 프로토콜은 Scope 3 산정 및 보고 기준에 대한 개선을 위해 △거버넌스 및 구조 조정, △지출 기반법을 대체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수집 방법 전환, △Scope 3 경계 조정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cope 3 감축전략 소개에서는 각 카테고리별로 배출량을 어떻게 감축해야 하는지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특히 카테고리 1,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에서 지출 기반법 사용 시 구매 단가를 절감해야 하며, 평균데이터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 무게를 감축하고, 재질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별 방법 사용 시 LCA가 중요하므로 △제조 전 단계 개선, △수송 공급지역 변경, △공급업체 설비 개선, △공급업체 협력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에서는 △SECERM의 반도체 산업 가이드라인 및 SBTi의 연관성, △애플사의 Scope 3 감축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II. SBTi 기업 승인 사례: 송자영 SK 네트워크스 파트너장



SK 네트워크스 송자영 파트너장은 <SBTi 가입 및 목표 검증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2022년 8월, SBTi에 Commitment Letter를 제출했고, 2023년 8월, 목표 승인 메일을 받았으며, 비용지불 이후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여섯 차례 SBTi의 질문을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및 이행방법 설정 과정에서 △기준 연도의 대표성, △화석연료 소매 사업 보유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및 산정 방법, △Scope 3 카테고리별 선정 및 제외 이유, △잔여 배출량에 대한 고려 등에 관해 SBTi 측과 논의하여 목표에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SK 네트워크스는, 단기 목표는 2021년 대비 2031년까지 Scope 1, 2는 46.2%, Scope 3는 27.5% 감축, 장기 목표는 2021년 대비 2040년까지 Scope 1, 2는 95%, 2050년까지 Scope 3는 90% 감축, 전체 목표는 2021년 대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로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송 파트너장은 △산정 범위는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반드시 일치시킬 것, △Scope 1, 2, 3 모두 제 3자 검증 필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에서는 △자회사의 청산, 회사 인수/매각이 있을 경우에 기준연도 재계산 여부, △종속회사로서 투자사에 대한 Scope 3 카테고리 구분, △운송 및 수송에서의 WTW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III. 참여사별 액티비티 팩 내용 공유: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



마지막으로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의 진행으로 참가자들이 10/4 일까지 제출한 액티비티 팩 과제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액티비티 팩을 작성하면서 SBTi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도전과제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실무진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문제, △복잡한 Scope 3의 선정 범위, △인력과 역량 부족, △SBTi 추진을 요구하는 해외 고객사의 압박, △경영진 의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 △매년 변경되는 협력사로 인한 공급망 데이터의 불확실성, △사업장별 목표 설정에 대한 어려움, △정확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고민, △부서간 협력에 대한 어려움, △다운스트림 산정에 대한 문제 등 여러 도전과제들을 공유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과학기반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CAA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장한별 과장(070-4327-968/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6. 2024 인권·반부패 통합 실무그룹 3 차 미팅 결과(10/16)



□ 일시: 2024 년 10 월 16 일(수), 14:00 - 17:00

□ 장소: ENA 스위트 호텔 3 층 R.ENA 컨벤션

□ 주요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 월 16 일(수), 총 15 개 기업 및 기관에서 27 명의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반부패 통합 실무그룹 3 차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ESG 경영에서의 아동권리 존중'과 '글로벌 공급망 내 윤리적 고용 증진'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듣고, 참여 기업/기관간 관련 이슈별 현안 공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I. ESG 경영에서의 아동권리 존중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사업팀장은 ESG 경영에서의 아동권리 존중을 주제로 기업 경영에서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류 팀장은 최근 발효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함께, EU와 영국에서 강화된 디지털 서비스법과 온라인 안전 법안에 맞춰, 기업들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광고 제한, 그리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광고나 마케팅에 대한 윤리적 기준 적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를 경영에 반영하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아동권리를 고려한 인권경영 실천 기업들이 경험한 사회적 평판 및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 · Child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이 기업 내 ESG 전략에 아동권리를 반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Q. 아동 렌즈(Child Lens)의 개념을 글로벌 기업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세요.

A. 아동 렌즈는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접근 방식으로, 기업이 모든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관점으로 영향을 평가하고, 아동이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학교나 도서관 같은 건물을 세우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에 집중하지만, 아동 렌즈를 적용한 접근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적 투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레고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예방적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며, 부모들이 자녀와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페어런팅(Parenting)' 프로그램에도 큰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정책을 재정비하고, 플랫폼을 더 안전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아동 보호 기준을 도입해 디지털 마케팅과 콘텐츠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II. 글로벌 공급망 내 윤리적 고용 증진



심릉 국제이주기구(IOM) 선임 정부 협력 파트너십 담당관은 글로벌 공급망 내 윤리적 고용 증진을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노동 리스크 사례 및 규제, IOM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전 세계 이주자의 약 60%에 해당하는 1억 6900만 명이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이 중 많은 수가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OM은 노동 이주 및 인신매매 방지에 특화된 UN 기구로,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에 희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노동 리스크 사례로 △자동차 공장 미성년자 불법 고용 피소, △1차 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 △고용 과정에서의 인신매매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 중개업체에 의해 착취당하고,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심 담당관은 IOM이 윤리적 채용 실사 툴킷과 MBHR(Migration, Business and Human Rights)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책임 있는 채용을 실천하고, 채용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며, 아디다스, 애플, IKEA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다양한 파트너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심 담당관은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기업의 투명한 대응과 책임 있는 채용 관행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자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필수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Q. 국내 기업과의 협력 사례가 궁금합니다.

A.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및 여러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내부 직원들과 현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윤리적 채용 관련 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IOM이 전 세계에 550여 개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는 만큼, 여러 국가에서 이주한 현지 법인의 노동자들에게 각 국가의 법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담당자들에게는 각국의 특성에 맞는 윤리적 채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

III. 참여 기업/기관 현안 공유



이어진 참여 기업/기관 현안 공유 시간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의 진행으로 참여사별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그룹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그룹 논의에서는 △해외 사업장 인권경영 및 지원 프로그램, △가족친화경영 제도, △인권영향평가 방식, △CSR 활동을 통한 아동권리 존중 지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각 사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동료 학습 및 벤치마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아동이 여러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직장 내 아동 권리 보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쓰는 반면, 국내 협력업체의 인권 문제는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SNS 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업들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3 차 미팅을 끝으로 2024 년도 인권 실무그룹 및 반부패 실무그룹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 년에도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 내재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그룹을 이어 나갈 예정이니, 2025 년 각 실무그룹(1 분기 중 모집)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안일곤 과장(070-4327-5057,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7. 2024 년 2 차 ESG 멘토링 결과(~10/1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6 월~10 월 동안 ESG 멘토링 2 차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멘토를 맡은 10 개 기업(주)두산, DRB 동일, CJ 제일제당,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콜마(주), 콜마홀딩스)이 다양한 주제로 미팅을 진행하였고, 42 개 멘티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일시:** 2024 년 6 월 18 일 ~ 10 월 16 일
- **장소:** 각 멘토 기업 사옥, UNGC 한국협회 사무실, 현장 답사 등



LG디스플레이 2차 ESG 멘토링



SK하이닉스 2차 ESG 멘토링



콜마홀딩스 2차 ESG 멘토링

[LG 디스플레이]

6 월 18 일에는 LG 디스플레이의 ESG 멘토링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 차 멘토링 내용 복습으로 시작하여, LG 디스플레이의 △ESG 추진 현황 및 탄소중립 선언, △거버넌스 체계, △ESG 변화 관리, △공시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ESG 팀 구조와 지표 관리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자사와 본사 내 ESG 팀구조 및 해외 사업장의 ESG 전담팀 여부에 대해 답변하였고, LG 계열사가 함께 사용하는 LG ESG Intelligence 를 통한 ESG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따라

협력사에 대한 ESG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사를 통해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 ESG 추진현황에 대한 투자자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문의 대응 사례도 공유했습니다.

[SK 하이닉스]

8 월 21 일 SK 하이닉스의 ESG 멘토링 세션은 Scope 3 감축 활동과 전과정평가(LCA)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Scope 3 감축 활동에 대해 SK 하이닉스는 먼저 공급망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대해 설명하며, 2019 년 출범시킨 'ECO Alliance 이니셔티브'를 소개했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주요 공급망 기업 연합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동선언에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구성원간의 시너지 확대, 네트워킹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CA 방법론 발표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따르고 있는 ISO 기준 3 단계인 △목적 및 범위 정의, △목록분석(투입물과 산출물 계산), △영향평가(데이터 수집/계산)에 대해 주요 예시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에서는 LCA 과정에서 폐기물 단계 포함 여부, LCA 의 후공정 과정, 에코인벤트(Ecoinvent)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LCA 기반으로 친환경 제품 개발 계획, LCA 를 통한 궁극적인 목표, 부서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콜마홀딩스]

8 월 22 일에는 콜마홀딩스의 ESG 멘토링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멘토와 멘티 총 4 개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콜마홀딩스는 지주사로서 관계사의 환경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지적했고, 코스글로벌은 비상장 기업으로서 공시의무는 없지만 준비 단계로서 진행 중인 여러 ESG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HLB 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ESG 경영 추진과정 및 실적, 중대성 평가 내용 등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인권경영 현황 발표에서는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실행,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구제기구 운영, △인권경영 선언문 등 다양한 노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마홀딩스가 인권영향평가 개선사항 및 DEI 활동 사례를 설명하며 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두산 2차 ESG 멘토링



포스코인터내셔널 2차 ESG 멘토링



포스코이앤씨 2차 ESG 멘토링

[주]두산

8 월 26 일에는 (주)두산의 ESG 멘토링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두를 연 유엔글로벌콤팩트 측에서는 인권경영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요구, 미래 도전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인권경영 현황진단을 위해 △정책 선언, △리더십, △인권에 대한 조직문화 및 분위기, △내부 역량강화, △벤치마킹의 관점에서 각 멘티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두산의 인권경영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산은 △인권경영 정책 구성,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 △고충처리 프로세스, △내외부 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애로사항과 고민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두산은 공시의무화 및 법적의무 부과와 같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타기업의 사례를 함께 공유하면 설득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충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각 멘티사의 현황을 공유한 뒤 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8 월 28 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ESG 멘토링 세션은 멘토사와 멘티사의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자문사의 역할,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 △중대성 평가 목적을 TCFD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 △해외 사업장의 인권실사 진행과정, △KPI 선정 방식 등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또한 인권실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온라인 서버비보다 직접 컨택하여

소통하는 편이 더 정확한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답변률을 높이면서 질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서베이 포맷에 대한 노하우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 질문에서는 △SBTi 목표 설정과 CDP 대응, △탄소발자국 추정, △평가기관 문항별 대응 방식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9 월 3 일에는 포스코이앤씨의 ESG 멘토링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포스코이앤씨에서 섭외한 이크레더블 컨설팅업체에서 ESG 트렌드와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크레더블은 특히 공급망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이앤씨는 공급망 실사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CSDDD 공급망 범위, △공급망 정책과 경영진의 책임, △인권영향평가 등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인권영향평가 단계인 △범위 설정, △공급망 매핑, △심화 평가, △우선순위화, △대응조치 각각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취약계층을 실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이앤씨는 글로벌 건설사로서 원자재 공급 시 강제/아동 노동, 원자재의 채굴/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 해상풍력 터빈 설치의 사회적 영향 등 현재 주목하고 있는 공급망 실사 이슈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콜마 2차 ESG 멘토링



한국가스기술공사 2차 ESG 멘토링



DRB동일 2차 ESG 멘토링



CJ제일제당 2차 ESG 멘토링

[한국콜마]

9 월 5 일에는 한국콜마가 개최한 지속가능세미나 'CONNECT FOR GREEN'에 참석한 후 멘티사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한 삶, 화장품 생산 단계에서의 지속가능경영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멘티사들은 △ESG 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도 결여, △ESG 업무팀 겸직에 따른 업무 효과성 부족, △배출량 측정의 어려움, △ESG 전담 부서 부재, △타 부서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콜마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ESG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ESG 중요성 강조, ESG 위원회 설립, 세미나 개최, 대외적인 성과 창출 등을 통해 경영진의 ESG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9 월 9 일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수소생산기지에서 현장 답사형 ESG 멘토링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평택수소생산기지의 ESG 환경경영 노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수소의 필요성, △수소의 생산방식에 따른 분류, △국내 수소시장 현황, △평택수소생산기지 운영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소는 청정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공업, 농업, 군사, 우주 등 광범위한 활용 범위를 갖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수소버스 보급을 중심으로 국내 모빌리티용 수소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평택수소생산기지가 국내 최대규모 기지로서 수도권 수소공급의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장 답사에서 수소 생산 공정의 흐름과 저장, 운송에 대해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택수소충전소 답사에서는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및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을 소개하고, 충전시스템 작동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DRB 동일]

9 월 11 일에는 DRB 동일의 ESG 멘토링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유주제로 진행된 본 세션에서는, 먼저 중소기업의 ESG 평가대응 방식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DRB 동일은 중소기업의 경우 ESG 평가 대응시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용해왔으나,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SDDD 에 따라 제 3 자 평가제도가 의무화되면서 타 국가 소재 계열사까지도 ESG 공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단일기업 대응시와 그룹사 대응시 각 평가방법에 따른 차이점, 필요서류, 대응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ESG 평가 대응을 위한 자료 제출시 공정명 및 제품명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지 않으면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군내 통용되고 있는 용례집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티사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CJ 제일제당]

10 월 16 일 진행된 CJ 제일제당의 ESG 멘토링 세션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CJ 제일제당은 2023 년도 보고서에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공급망 세 가지 주제를 ISSB 공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주요 성과를 보고서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50 년까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자산손실을 3% 미만을 유지하는

전망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전략, 완화활동과 적응활동을 구분하여 2023 년에 달성했던 주요 성과를 보고서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 안에 해당하는 지속가능한 패키징 전략, 사업장의 폐기물 감축, 식품 손실 폐기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전략, 협력사 ESG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샘플링을 통한 자체적인 데이터 점검, △데이터 책임 검토 등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티사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주요 애로사항과 고민사항을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번 2 차 ESG 멘토링에서는 EU CSDDD 에 따른 공급망 관리, 인권경영체계 구축 방법, ESG 팀 구조 및 ESG 데이터 관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방법 등 공통적인 관심 현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3 차 ESG 멘토링은 10 월/11 월 중 진행 예정이며, 멘토링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향후 멘토링에 관심있는 기업들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장한별 과장(070 4327 9768,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2024 UNGC Leaders Summit]

- 혁신으로 만드는 변화: SDGs 를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



- **일시:** 2024년 9월 24일(화) 1:30 PM - 3:30 PM
- **주요 연사:** ▲ 우즈마 하미드-디지에(Uzma Hamid-Dizier) 슬로터 앤 메이(Slaughter and May) 책임경영 부문 이사, ▲ 우르술라 윈호벤(Ursula Wynhoven)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대표, ▲ 제이슨 슬레이터(Jason Slater)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디지털 및 혁신 최고 책임자



본 세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각 팀은 환경 문제부터 사회적 불평등, 기술적 도전 과제까지 여러 분야에서 SDGs 실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소개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본 세션은, 다양한 혁신 활동을 통해 더욱 빠르게 SDGs 달성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Background
Indonesia's Ongoing Battle Against Plastic Waste Generation

Our Solution
Community-based HDPE recycling facility

Facts about Indonesia's waste generation:

1. Generates **6.8 m tons** of plastic waste annually
2. Only **10%** went for recycling
3. **3.7 m** waste pickers face precarious work and low wages
4. Producing virgin HDPE resin releases **7.89 kgCO₂e/kg**

3 Steps towards better plastic circularity:

- Step 1: Setting up collection centers
- Step 2: Establishing recycling facility
- Step 3: Promoting Plastic Circularity with fair pay and incentives for waste pickers

The diagram illustrates the 'PLASTIC CIRCULARITY' cycle: Raw Material → Produce → Distribution → Recycle → Collection and Sorting → back to Raw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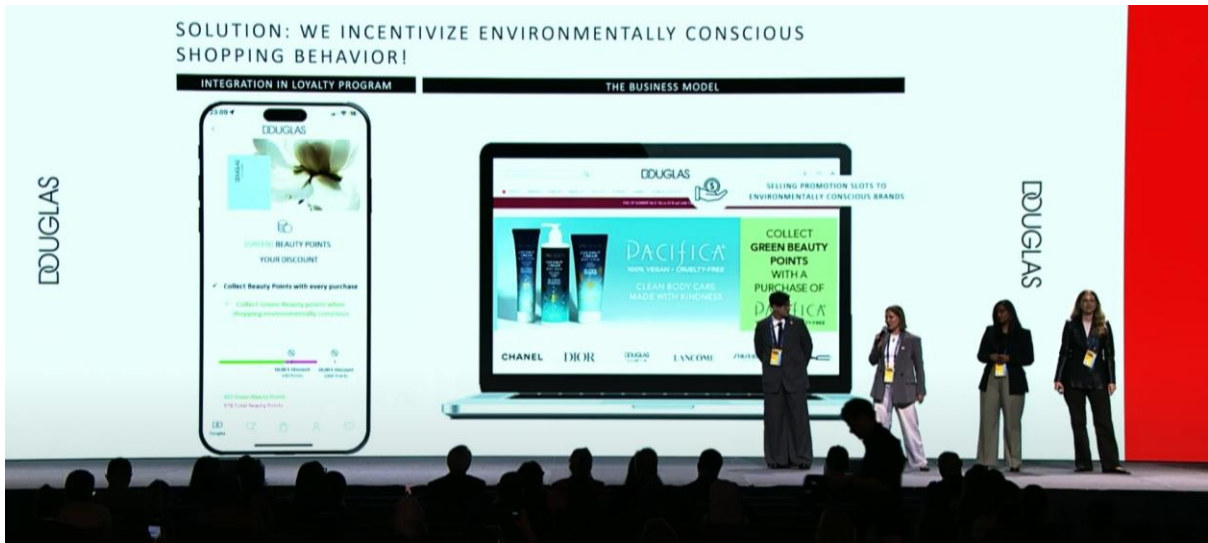
소개된 여러 프로젝트 중,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Team Dynapack Asia** 는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기반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재활용 시설을 구축하는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폐기물 수집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며,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기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터키의 **Team Norm Holding** 은 기계의 진동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전력으로 변환하는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피에조 전기(Piezoelectricity) 센서를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제조 공정에서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Team KPN** 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환경 불안(Eco-Anxiety)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교통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중요한 솔루션들이 제시되었습니다. **Team NAS Technology** 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중국 시골 지역을 대상으로 한 'EV Charging Beyond Urban'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사용하여 충전소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는 전기차 사용 확대와 함께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Team Sunlum** 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운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택시 승객을 위한 저렴한 보험 솔루션과 운전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농업 및 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Team Secreti**가 소규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재정 지원을 돕는 ESG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소규모 농업 공동체가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eam Orbia**는 소규모 농민들을 위해 자원 관리와 금융을 통합하여, 농민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스마트팜 플랫폼 'Agronet'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들도 소개되었습니다. **Team Bley and Associates**는 가나의 법률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법률 문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법적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Team Phoenix Group**은 비공식 돌봄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제안하여, 돌봄 노동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Team Prasarana**는 말레이시아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통 부문에서의 성평등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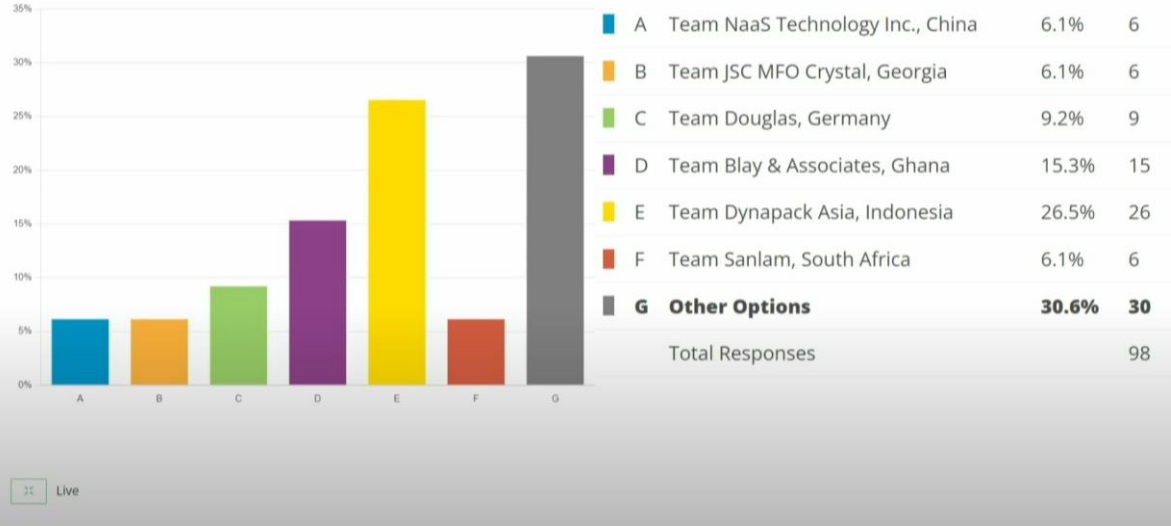


기업 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솔루션들도 주목받았습니다. 조지아의 Team Crystal 은 기업 내에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이 팀은 '그린 앰배서더'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Team Douglas 는 친환경 쇼핑을 촉진하기 위한 '그린 뷰티 포인트'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미용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할인 혜택이나 지속 가능한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 팀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한 SDGs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각 팀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 여성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피드백 및 청중들의 실시간 투표를 통해 아이디어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 받았습니다. 소개된 프로젝트들은 향후 더 많은 자원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DGs 목표 달성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세션을 통해 제시된 솔루션들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참여 팀 목록 및 심사 결과>

Vote for your top three SDG Innovations!



1. Team Secreti(브라질): ESG 플랫폼을 활용한 소규모 농업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재정 지원
2. Team NAS Technology(중국): 농어촌 지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솔루션
3. Team Crystal(조지아): 기업 내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4. Team Douglas(독일): 친환경 쇼핑을 장려하는 그린 뷰티 포인트 제도
5. Team Bley and Associates(가나): 가나의 법률 시스템 디지털화로 법률 문서 접근성 개선
6. Team Dynapack Asia(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과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7. Team Prasarana(말레이시아): 공공 교통 산업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8. Team Orbia(멕시코): 소규모 농민을 위한 스마트팜 솔루션
9. Team KPN (네덜란드): 기후 불안(eco-anxiety)을 완화하는 심리 지원 시스템
10. Team Sunlum(남아프리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한 택시 보험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11. Team Norm Holding(터키): 기계 진동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에너지 효율성 솔루션
12. Team Phoenix Group(영국): 비공식 돌봄 노동자를 위한 연금 관리 및 지원 시스템

자세히 보기

■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글로벌 지침



- **일시:** 2024년 9월 24일(화), 10:30 AM - 12:30 PM
- **주요 연사:** ▲ 주타 얼피라이넨(Jutta Urpilainen) EU 집행위원회 위원 ▲ 멜리사 포웰(Melissa Powell) UNGC 부국장 ▲ 프리티 스리바스타브(Preeti Srivastav) 아사히그룹 지속가능성 부문장 ▲ 마이클 오코라포(Michael Okorafor) McCormick & Company 지속가능성 CEO ▲ 베아트리즈 투모인(Beatriz Tumoine) Cemex 사회적 영향 디렉터 ▲ 제니 와센아르(Jenny Wassenaar) Trivium Packaging 지속가능성 부문 책임자 ▲ 딜립 팔(Dillp Pal) Safaricom CFO ▲ 프라티마 싱(Pratima Singh) Economist Impact 선임매니저 ▲ 크리스토퍼 퀴키엠포익스(Christophe Quiquempoix) 슈나이더 일렉트릭 부사장 ▲ 톤토자 우칸제(Tonthoza Uganje) Sustainable Farming Solutions CEO ▲ 에이런 섬(Aaron Sum) Alliance Bank 말레이시아 지사 전략 부문 최고 책임자 ▲ 준코 오타니(Junko Ohtani) Kao Corporation 부사장 ▲ 톰 스자키(Tom Szaky) TerraCycle 대표이사 ▲ 올칸 마마독루(Orkan Mamadoglu) 중소기업협회장

글로벌 공급망내 20 억명의 일자리가 연결되어 있으며, 온실가스의 60% 정도가 공급망에서 배출됩니다. 한편, 전 세계 일자리의 50%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이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 팬데믹, 공급망 붕괴 등과 같은 글로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본 세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미래에 대해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류타 알피라이넨(Jutta Urpilainen)** EU 집행위원회 위원이 최근 세계가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의 긴장 고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재집권 등 여러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EU가 채택한 세 가지 전략인 △공급망의 다변화와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협력,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환경적, 사회적 기준 준수, △글로벌 남반구의 지역 가치창출 지원 등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덧붙여 2027년까지 3천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통해 녹색전환과 디지털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하는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미비아에서 녹색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현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자립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멜리사 포웰(Melissa Powell)** UNGC 부국장이 좌장으로 첫번째 패널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갈등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공급망의 여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시장 트렌드,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 수익성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프리티 스리바스타브(Preeti Srivastav) 아사히그룹 지속가능성 부문장이 아사히는 100개 이상의 글로벌 시장에서 3만 개 이상의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3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공급망 관리 및 조달 방식의 혁신을 꾀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별·브랜드별로 분산된 조달시스템이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증진되어 1억 달러의 비용절감을 이루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사히는 탄소중립 목표를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겼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의 주요목표를 실현할 동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이클 오크라포(Michael Okorafor) McCormick & Company 지속가능성 CEO 는 자사의 경우 주로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남반구에서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가운데 2025년까지 지속가능한 조달 방식을 구축하고자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익을 위한 성장(Grown for Good)' 전략을 도입해 농장 인증, 윤리적 공급망 구축, 여성 역량 강화, 강제 노동 방지, 재생 농업 등의 실천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농업 공동체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농민들이 지속가능성과 품질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베아트리즈 투모인(Beatriz Tumoine) Cemex 사회적 영향 디렉터는 공급업체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체적으로 친환경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등 액센추어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 높여주어, 이들이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며 인권과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더 나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니 와센아르(Jenny Wassenaar) Trivium Packaging 지속가능성 부문 책임자는, 주로 슈퍼마켓의 깡통과 스프레이 캔 등을 제조하는 Trivium Packaging 는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히며 금속산업에서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지만, 주요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공급망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위 200 개 주요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함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급업체 행동강령을 체결하며, 정기적으로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딜립 팔(Dillip Pal) Safaricom CFO 는 케냐와 에티오피아에서 약 5 천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회사로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95%의 기지국을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이중 약 1/3 을 완료했으며, 고객 사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전력 소비를 약 20%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위기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자 유럽과 중국의 공급망을 두바이로 전환하여 케냐로의 운송 시간이 단축되었고,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두번째 패널토론 세션은 ‘미래의 공급망 구축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Building tomorrow’s supply chains: What’s next?)’를 주제로 **프라티마 싱(Pratima Singh) Economist Impact 선임매니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퀴킴포익스(Christophe Quiquempoix) 슈나이더 일렉트릭 부사장은 2021년부터 지속가능한 조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급자 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탄소배출 감소, 녹색재료 및 지속가능한 포장 등의 3대 변혁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급업체와 함께 ESG 성과를 향상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가 목표설정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의 실행방안을 학습하기 위한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톤토자 우칸제(Tonhoza Uganje) Sustainable Farming Solutions CEO는 말라위에서 발생한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 전반 및 커뮤니티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커뮤니티에 재정지원과 기술제공 △여성의 농업활동 참여 유도 △농업인들의 디지털 기술 접근성 강화 △바텀업 접근방식으로 현장 커뮤니티와의 의사소통 채널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지원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이런 섬(Aaron Sum) Alliance Bank 말레이시아 지사 전략 부문 최고 책임자는 중소기업(SME)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성 목표를 촉진 중이라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얼라이언스 बैं크,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정부, UNGC 말레이시아 협회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ESG 관련 프레임워크와 요구사항 대응에 혼란을 겪고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 진단 툴을 제공한 점도 설명했습니다.

준코 오타니(Junko Ohtani) Kao Corporation 부사장은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소규모 농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 교육을 제공하여 농업 수익 증대 및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공급망과 함께 성장하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툼 스자키(Tom Szaky) TerraCycle 대표이사는 재활용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경제성과 편리함을 우선하여 사회적으로 재활용처리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회수와 처리비용을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대규모 재활용품 촉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는 재사용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지만, 북미에서는 규제와 인센티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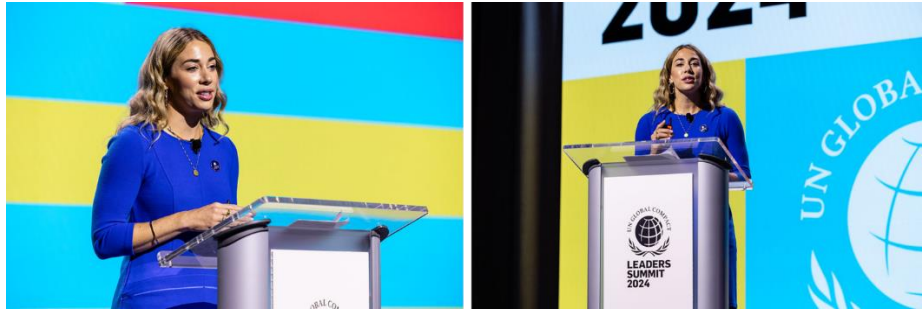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발적 재정지원과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OP 29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올칸 마마독루(Orkan Mamadoglu) 중소기업협회장**의 폐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세계 경제의 중추로, 전 세계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개발도상국에서는 7 개의 일자리 중 5 개를 창출하지만 자원, 기술,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가능한 실천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GC 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목표와 우선순위에 맞게 전략을 정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이 중소기업들이 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바쿠기후연합(Baku Climate Coalition for SMEs)’이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는 등의 노력을 소개하며 전 세계 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생성형 AI: 의도와 영향력 간의 격차 해소



- **일시:** 9/24(화) (시간) 9:35 - 9:45 (EDT)
- **연사:** 웨슬리 스피들러(Wesley Spindler) 글로벌 지속가능성 리더십 전무 이사, 액센츄어(Accenture)

웨슬리 스피들러(Wesley Spindler) 액센츄어 전무 이사는 생성형 AI(Gen AI)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사이트 및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역할과 비즈니스의 역량이 결합되어야 만이 기업이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웨슬리 스피들러는 현재 액센츄어에서 순환경제를 연구하면서 생성형 AI가 글로벌 시스템을 순환형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문제 해결에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R&D 팀은 생성형 AI를 통해 자원 집약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물류팀은 유통 채널 전반의 운송 경로 및 재고를 최적화하고, 역물류 네트워크(reverse logistics networks)에서 발생하는 운영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품이 고객에 전달된 후에는 생성형 AI가 자산 공유(asset sharing)를 촉진하거나, 고객 또는 기술자에게 수리 주기를 안내하고, 회수 및 재활용 공급업체가 자재를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이 생성형 AI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활용 예시로, 먼저 인도의 ESG 및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인 “슈퍼휴먼레이스(SuperHumanRace)”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슈퍼휴먼레이스는 머신러닝과 생성형 AI를 결합해 임신 및 출산 중인 산모들의 사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검사, 영향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여 인도 농촌 지역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다국적 기술 및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는 생성형 AI를 통해 내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배출 데이터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속도를 높이고 추가 개선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액센츄어 조사에 따르면,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위한 메커니즘을 완전히 가동한 기업은 2%에 불과하며, AI 관리에 환경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성형 AI 솔루션의 개발과 활용을 고려할 때, 각 애플리케이션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 권력의 공유와 이동: 세대간 대화



- **일시:** 2024년 9월 24일 16:00-16:30 (EDT)
- **연사:** ▲ 아카야 윈우드(Akaya Windwood) Third Act 수석 고문, ▲ 루이사 프랑코 마차도(Luisa Franco Machado) UN SDGs 청년 리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세대 간 대화에서 아카야 윈우드 수석 고문과 UN SDGs 청년 리더 루이사 프랑코 마차도는 세대 간 교류에서의 깊은 포용과 권력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루이사 UN SDGs 청년 리더**는 권력의 개념을 탐구하며 권력을 '변화를 창출하거나 창출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소외된 지역사회가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성세대가 청년리더에게 대체될 것을 두려워하는 문제와 청년세대가 '미래의 리더'로만 인식될 때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언급하며, 청년세대가 현재 사회 변화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양성이 필수인 기술 개발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세대 간 경험과 지식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청년세대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IT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더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글로벌 연대를 제안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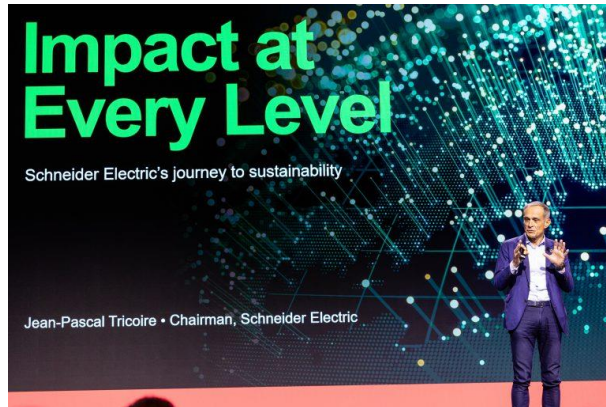


아카야 Third Act 수석 고문은 권력이 관계와 지역사회 참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회 전반에서 위계적인 권력 구조에서 협력적인 권력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맥락에서 자란 세대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지지하고 의견제시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되,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함께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세대 간 대화와 상호이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직장과 조직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개방적인 태도로 협력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년세대가 맞이할 미래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일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지원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연사는 세대간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 모든 단계에서의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향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여정



- 일시: 2024년 9월 24일 4:30 PM - 4:45 PM
- 연사: 장 파스칼 트리쿠아 (Jean-Pascal Tricoire) 슈나이더 일렉트릭 (Schneider Electric) 회장

본 세션에서는 세계적인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전문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이 지속가능성을 향한 여정을 소개하였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지속가능성을 기업에 내재화하는 것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세우고, 그 여정의 첫 걸음으로, 2003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시가총액 12배, 매출 4배 이상을 늘려 기업의 시장 가치를 성장시켰고, 디지털화 및 지속가능성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꼽혀 2021년 Corporate Knights*에서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 Corporate Knights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둔 캐나다의 투자 리서치 및 미디어 그룹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글로벌 100대 기업'과 같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연구 보고서와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 등급을 발표하는 잡지 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글로벌 100대 기업 지수는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사이자 오랜 기간 슈나이더 일렉트릭을 이끌어온 장 파스칼 트리쿠아 (Jean-Pascal Tricoire) 회장은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디지털화와 청정 전기화를 주요 기술 혁신에 적용함으로써 전통적인 회로 차단기 제조업체에서 스마트 및 친환경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 변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현재 에너지가 부족한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에너지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 파스칼 트리쿠아 회장이 이러한 변화를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기후변화를 현세대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너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나, 여전히 에너지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는 10억명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기후위기가 이러한 권리보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방식의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현재 두 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올바른 궤도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파스칼 트리쿠아 회장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먼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목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혁신에 도전했습니다. 20년 전 아무도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던 시절,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디지털화 하면 총 30~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요 기술들을 디지털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은 사람, 문화, 생태계 전반의 협력에 크게 의존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대의를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3년마다 명확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정립하고, 기업 내 ESG 문화확산을 위해 힘쓰며, ESG 목표를 직원들의 KPI에 반영함으로써 기업 내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탄소발자국 중 99%가 회사 외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업체와 고객을 지속가능성 노력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기준으로 상위 1000개의 공급업체가 탄소배출량을 두 배가량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함과 동시에 공급업체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에게는 연간 1억 톤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탄소배출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매출의 80%가 지속가능성과 관련되어 있기에, ESG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3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는 향후 비즈니스 시장에서의 많은 기회는 신흥시장에서 있을 것으로 보고 에너지 프로젝트의 50%를 신흥국에서 개발하면서 현재 5천만 명의 신흥국 사람들에게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청정 전기화 및 디지털화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이 스스로 이러한 기술을 더 큰 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파스칼 트리쿠아 회장은 이러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다각적인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사회에 CSR 위원회를 두고 오랫동안 지속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경영전략에 통합하는 사람을 경영진에 세웠으며, 또한 경제계 출신이 아닌 NGO 출신, 정계 출신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이해관계자 위원회를 두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목표에 보다 다각적인 시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구성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별로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ESG 지표에 대한 감사를 받으며, 기업의 인센티브 일부를 자체 성과 평가가 아니라 독립기관이 수행하는 다른 회사의 성과와의 상대 평가에 할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 파스칼 트리쿠아 회장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이러한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장기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적인 혁신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결국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기술 슈퍼사이클과 공동의 미래를 위한 약속



- **일시:** 2024년 9월 24일 9:10 AM - 9:35 AM
- **연사:** 에이미 웹(Amy Webb) Future Today Institute 대표

본 세션에서는 전략적 미래학자인 **에이미 웹(Amy Webb)**이 기술 슈퍼사이클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기회 창출을 위한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에이미 웹이 설립한 Future Today Institute는, 데이터 및 연구 기반의 전략적인 예측 방법론을 개발하여 비즈니스 리더들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드맵을 제공하고, 회복탄력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본 세션에서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탈석탄과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해고된 광부들을 단기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재교육하여 고임금 기술자로 성장시키려던 시도의 실패를 예시로 언급하며, 단순히 일시적인 트렌드에 맞춰 근로자의 재교육을 시도하는 대신 기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AI, 생명공학, 첨단 센서와 같은 3 가지 범용 기술의 융합에 의해 주도되는 중대한 경제적 변화, 이른바 '기술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혁신을 필요로 하며, 산업혁명과 인터넷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미 웹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기술 슈퍼사이클을 분석하여 신중하게 탐색해야 하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며, 기업 리더들에게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중대한 대전환의 시기를 겪고 있는 전환세대 (Transition Generation)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공동의 적극적인 적응 및 대응이 필요하며 비전을 공유하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UNGC, COP29 계기 제 12 차 ‘기후를 위한 배려’ 고위급 회의 개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난 11월 13일 바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계기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제 12 차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 고위급 회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본 회의에는 기업, 금융, 정부, 시민사회, 유엔의 고위급 리더들이 참여하여 시급한 글로벌 기후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금융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COP29 주제가 ‘COP 를 위한 자금조달(Finance COP)’로 선정되었으며, 야심찬 기후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의 자원 활용과 상호 연계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여자들은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에 부합하는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이러한 국가 단위의 공약을 기후적응□감축 및 회복력을 위한 포괄적인 투자 로드맵으로 전환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금융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리더, 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기후목표를 우리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기후 금융 환경에서 민간 부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급 회의의 논의는 다음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NDCs 를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수조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확장성 있는 민관 파트너십(scalable public-private partnerships)’의 시급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투자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기후 리스크를 재무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 **민간 부문의 잠재력 활용:** 참여자들은 특히 취약한 지역의 기후 적응 프로젝트에서 자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혁신적인 금융 모델, 혼합 금융, 정책 연계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들이 국가기후목표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 **개발도상국 지원:** 기후 행동이 포용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기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의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솔루션을 강화하여 회복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본 회의는 2007년 출범 이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민간 부문 참여 포럼 중 핵심 포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회의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며 비즈니스 리더들이 기후 문제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행동을 약속하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합니다. 올해 세션은 유엔의 기후 목표 달성을 지지하는 글로벌 공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 조달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UNGC는 NDC 파트너십 및 기후약속 2025(the Climate Promise 2025) 이행을 위한 UN 체제내에 다양한 회원국들이 NDC 달성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하고 영향력 있는 기후 행동을 위한 비즈니스 혁신과 투자를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출범한 기후약속은 현재 12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NDC 지원 목적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각국이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량 감축, 적응 전략, 자금 조달, 정책 조정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3. ABLC, COP29 계기 아프리카 민간 부문 기후행동의 진전 논의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아프리카 비즈니스 리더스 연합(Africa Business Leaders Coalition, ABLC)’은 CEO 주도로 발족된 이니셔티브로서 COP29 계기 ‘2024 기후 보고서(2024 Climate Report)’를 발표하고 아프리카의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아프리카내 민간 부문의 진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고위급 ‘기후를 위한 배려(Caring for Climate)’ 회의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 보고서는 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기후금융, 재생에너지, 적응 및 회복탄력성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022년에 설립된 ABLC는 아프리카 비즈니스 리더들이 기후행동과 성평등을 포함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2024 기후 보고서는 지난 2022년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27 이후의 진전 및 성과를 소개하며, 야심찬 기후목표를 향한 회원들의 진전 현황을 수록했습니다. 올해 COP29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ABLC의 확고한 의지를 조명하고, 아프리카가 글로벌 기후 솔루션과 관련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ABLC 2024 기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 행동을 위해 48억 달러 기부:** 지난 2년 동안 ABLC 회원사들은 기후 이니셔티브에 총 48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특히 이 중 금융기관은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9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그 외 다양한 업종의 ABLC 회원사가 기후행동을 위해 8억 9,600만 달러를 추가로 유치했습니다.
- **ABLC 회원사 20%만 외부 펀딩 활용:** 외부로부터 기후금융을 활용한 ABLC 회원사는 20%에 불과했습니다. 회원사는 이용가능한 자금 조달 옵션과 잠재적 구조화(potential structuring) 및 적합한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총 에너지 사용량의 2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2024 년 ABLC 회원사들이 사용한 총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23 년 대비 8%p 상승한 28%로,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ABLC 회원사들의 노력은 IEA(국제에너지기구)가 설정한, 2030 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7%를 재생에너지원에서 조달하는 목표에 부합합니다. 몇몇 ABLC 회원사들은 2030 년까지 평균 50%의 재생에너지 혼합 목표 달성 등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기후 진전을 위한 ABLC 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 **ABLC 회원사 중 2/3 이상이 기후 리스크 평가시스템 운영:** 설문에 따르면 2024 년에 기후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ABLC 회원사의 수가 20 개사에서 26 개사로 30% 증가했으며, 이는 설문에 응답한 회원사의 2/3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급증은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내년까지 7 개 기업이 추가로 기후 리스크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조사 대상의 94%가 평가를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직 전반의 기후 적응 및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은 2024 기후 보고서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시적이고 측정가능한 기후 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아프리카 비즈니스 리더들의 리더십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2024 기후 보고서는 기후 솔루션을 확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며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한 회복력을 증진하는 ABLC 의 여정을 조명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길 촉구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ABLC 은 ABLC 는 인사이트, 도전 과제,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아프리카 기업과 국제 파트너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아프리카의 기후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고 아프리카가 지속가능발전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개최될 COP30 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인 COP29 에 ABLC 가 참여하여 측정가능한 기후 진전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ABLC 는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가속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회원사의 운영, 공급망 및 영향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ABLC 는 민간 부문이 야심찬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 규제기관, 정책입안자, NGO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기후행동을 확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기후금융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ABLC 의 기후 행동 여정에 동참하려면 ablc@unglobalcompact.org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비즈니스 리더 연합(ABLC)’ 소개

‘아프리카 비즈니스 리더 연합(ABLC)’은 2021~2023 년 및 2024~2025 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아프리카 전략(UN Global Compact Africa Strategies)’에서 출발한 민간 부문 이니셔티브로, 아프리카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측정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및 번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BLC는 기후행동 및 성평등에 대한 과감한 행동 이행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ABLC는 아프리카 51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연간 총 1,650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약 100만 명의 직원을 보유한 69개 회원을 대표하는 CEO 및 이사회 의장 주도의 연합체로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위치한 UNGC 허브 및 10개의 아프리카 국가 네트워크(African Country Networks), 아프리카 전역에서 운영 중인 4개의 확장 국가(Expansion Countries)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4. 오션스 20, 해양 스튜어드십을 위한 G20 행동 촉구 성명 발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오션스 20(Oceans 20, O20)’의 6 개 주관기관 중 하나로 지난 11 월 18-19 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 의 중요한 부대행사인 ‘해양 회의(11/16)’를 앞두고, 11 월 12 일 O20 의 첫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O20 는 G20 아젠다 중 해양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촉진합니다.
-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O20 의 성명서에는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 해양 보존, 거버넌스 강화, 해양 금융 증진을 위한 10 가지 원칙과 6 가지 실행가능한 권고안이 담겼습니다.
- 성명서 초안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 34 개국 6,000 명 이상의 참가자 및 300 명 이상의 연사의 참여로 작성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해양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해양 자산의 가치는 전 세계 GDP 의 3~5%에 해당하는 [약 24 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해양의 가치는 오랜 기간 과소평가 되었으며 글로벌 아젠다에서 중요 의제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G20 회원국은 전 세계 해안선의 절반에 가까운 영역을 관리하며, 전 세계 인구의 60%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무역량의 75%를 차지하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0%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20 회원국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해양 경제를 촉진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다자간 논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 성장,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2030 년까지 해양 기반 산업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전 세계 경제에 3 조 달러 이상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해양 경제를 실현하려면 모든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의 바다를 보호하고, 이끌며, 돌봐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O20은 글로벌 자연 및 기후 의제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인지한 G20 최초의 상임 참여그룹(engagement Group)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G20 의장단의 주도로 출범한 O20은 2024년 3월 브라질 의장단(presidency)의 주도로 G20의 상임 지위로까지 격상되었습니다. G20은 O20의 중요성을 인정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적 번영, 기후 행동, 안보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또한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기념하여 O20은 G20 정상들이 기후, 개발, 무역 논의에 해양 아젠다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첫 번째 성명서 ‘해양 스튜어드십을 통한 경제 번영, 기후 행동, 안보 추진(Driving Economic Prosperity, Climate Action, and Security through Ocean Stewardship)’을 발표했습니다.

아나 파울라 프라테스(Ana Paula Prates) 브라질 환경부 해양 및 연안 관리부 국장은 “브라질 G20 의장단 산하의 ‘환경 및 기후 지속가능성 그룹’은 기후 안정성 확보 및 환경 복구에 요구되는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양을 글로벌 환경 의제의 최전선에 두었다.”라며 “지난 몇 달 동안 O20 및 전 세계 해양 커뮤니티가 제시해온 권고와 적극적인 참여가 G20 회원국 환경 장관들이 채택한 최종 선언문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O20은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해양 대화(Ocean Dialogues)를 통해 정부, 기업 부문, 학계,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국제적 협력과 참여를 장려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34개국에서 6,000명 이상의 참가자와 300명 이상의 글로벌 연사가 참여하여 G20을 위한 실행가능한 권고사항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는 O20의 첫 번째 성명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알렉스 투라(Alex Turra) O20 의장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글로벌 해양 대화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논의한 권고안은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실무그룹 선언문’에 반영되었다.”라며 “O20은 해양 관련 G20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G20 실무그룹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해양을 건설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O20 성명서는 10가지 원칙 아래 6가지 주요 실행가능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해양 경제 촉진, △야심차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 추진, △식량 안보 증진, △해양 생태계 보존 및 복원, △해양 거버넌스 강화, △사회적 포용, △정책 일관성 및 통합, △과학 및 혁신, △민관-자선 파트너십 촉진, △해양 금융 가속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니스 트로트 두하(Janice Trotte Duhá) 브라질 국립해양연구소(INPO)의 인프라 및 운영 책임자는 “O20 성명서는 과학, 경제, 정책 간의 대화를 통해 해양 보호를 위한 실행 가능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G20 회원국에 제시했다”라며 “해양 과학 부문 브라질의 오랜 협력 파트너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25년 G20 의장국 지위를 이어받아 우리 모두의 번영을 위한 상징이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자원을 보유한 해양을 위한 O20의 사명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O20은 G20 정상들에게 기후, 개발, 무역 우선순위에 해양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특히 해양과 기후 사이의 교차점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나 파울라 프레이츠는 “제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UNFCCC COP30)의 주최국인 브라질은 추후 G20 의장단에 제시할 ‘기후와 해양에 관한 행동 의제(Action Agenda on Climate and Oceans)’를 수립하고, UNFCCC COP 논의에 해양 아젠다를 영구적이고 포괄적으로 추가하도록 O20 에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G20 의 행동을 촉구하는 O20 성명서는 출범 첫해의 중요한 결과물이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해양 경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슈나(Kilaparti Ramakrishna)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WHOI) 해양정책센터 소장은 “브라질 G20 의장단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 O20 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성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 공식적으로 G20 석상에서 해양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G20 정상들이 과학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해양 경제를 구축할 수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추후 G20 의장국과도 O20 의 지속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O20 은 2022 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지원 하에 해양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공공 부문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블루 이코노미를 위해 자연 친화적인 행동을 추진하고자 발족되었습니다.

실비아 구치니(Silvia Guzzini) 세계경제포럼 해양 행동 의제 전략 및 프로그램 책임자는 “G20 인도네시아 의장단내 O20 출범이 처음 논의된 2022 년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와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G20 은 해양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해양 경제가 공평한 개발,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할 기회는 무수히 많다. 이제 G20 정상들이 O20 권고안을 담론에 반영하여 차기 G20 남아공 의장단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함으로써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I. 기업 소개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 전문 기업으로, 발전용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 및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HyAxiom Motors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여 친환경 상용차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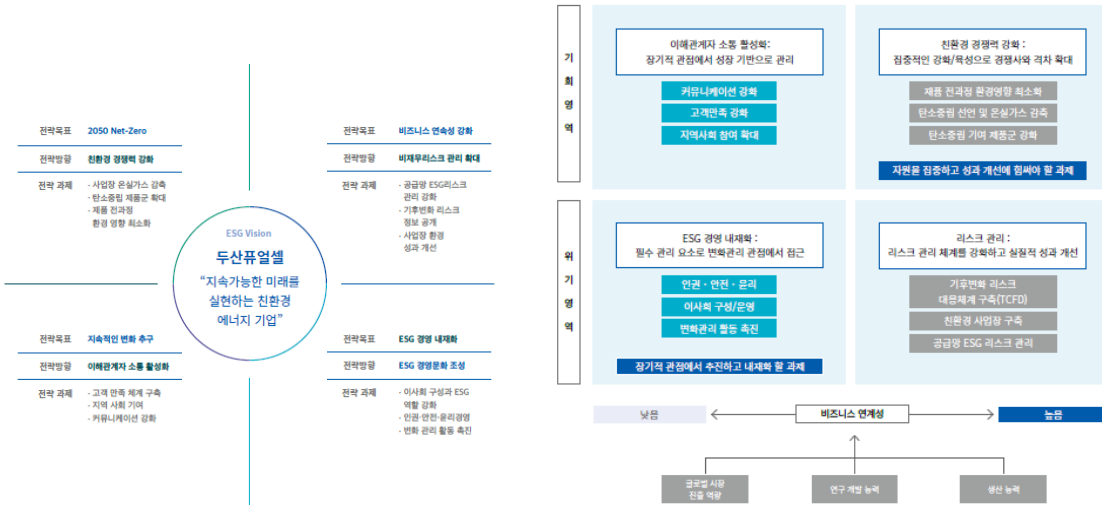
당사가 제작·공급하는 연료전지는 전기 및 열효율을 포함한 복합효율이 높고 안정성이 우수하며 분산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 발전원으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누적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Net-Zero 달성, 고객만족을 위하여 다양한 제품군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실천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I.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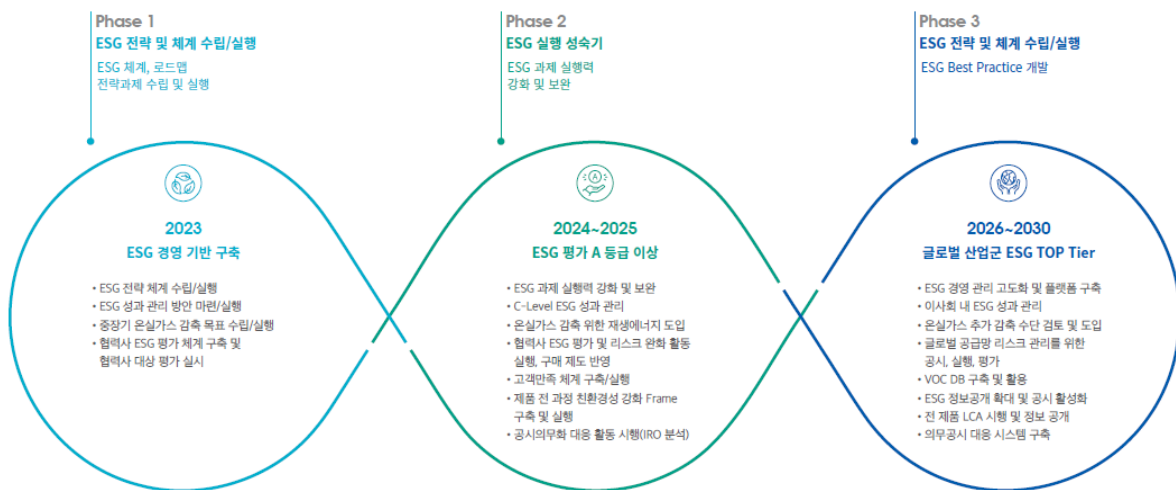
[ESG 전략]



두산퓨얼셀은 수소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의지를 담아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연계성과 위기 및 기회 요소를 기준으로 ESG Vision, 전략목표, 전략방향,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전략과제는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장을 Leading 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고 육성할 ‘친환경 경쟁력 강화’ 과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점진적인 성과 개선에 집중해 비즈니스 연속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비재무리스크 관리 확대’ 과제,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기반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 과제, 변화관리 관점에서 ESG 경영이 전 임직원에게 내재화되도록 하는 ‘ESG 경영문화 조성’ 과제의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원의 집중 정도와 실행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ESG 추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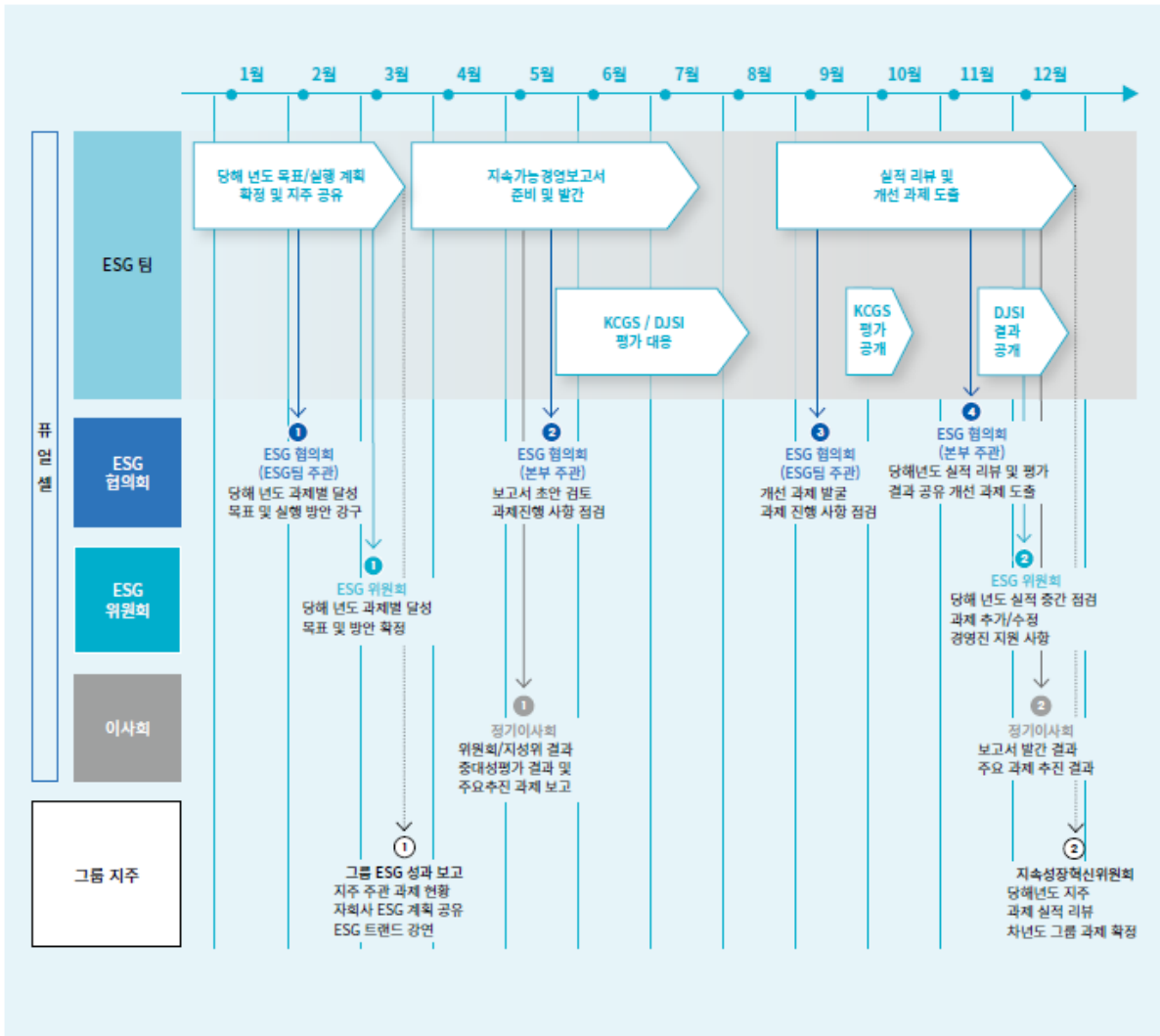


두산퓨얼셀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라는 ESG Vision 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2023 년은 그 첫 해로서 ESG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등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KCGS ESG 평가 A 등급 획득 등 일부 목표는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4 년부터는 ESG 과제 실행력을 높이고 제품 전과정 친환경성 강화 등 일부 과제는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 년부터는 ESG 전 부문의 이행 활동 고도화를 위해 IT Infra 를 구축하고, ESG Best Practice 를 개발해 2030 년에는 글로벌 ESG Top Tier 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SG 성과관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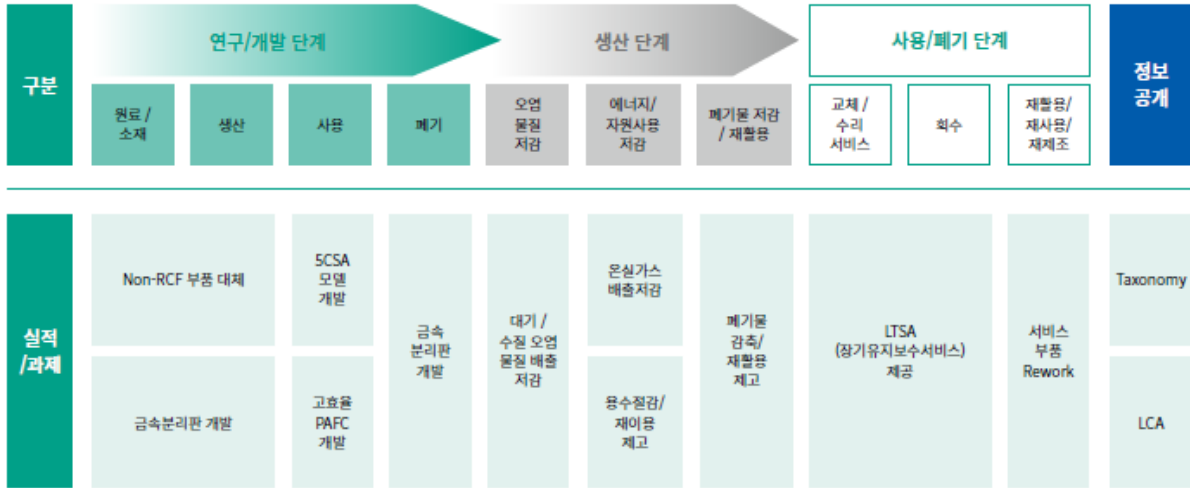
두산퓨얼셀은 분기별로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여 ESG 전략 과제 성과를 관리하고 실천합니다. ESG 성과를 관리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실무자와 실무 책임자가 참여하는 ESG 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합니다. 1·3분기 협의회는 ESG 팀이 주관하고, 2·4분기 협의회는 각 본부에서 주관하여 ESG 각 현업부서에 내재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2 회 CEO 가 주관하고 전사 임원 및 주요 팀장이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 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회와 위험을 파악하고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당해년도 ESG 목표와 성과, 실행 방안에 대해 승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정기 보고를 통해 ESG 위원회와 지속성장혁신위원회 결과, 중대성 평가 결과 등 주요 추진 과제를 보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및 주요 과제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III. 사례

[제품 전과정 친환경성 강화 Frame 구축]



두산퓨얼셀은 친환경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 특성상 제품 경쟁력 강화 활동이 곧 환경에 기여하는 ESG 성과와 직결됩니다. 이에 따라 제품 경쟁력 강화를 ESG 성과와 직접 연계하여 비즈니스 과제와 ESG 과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제품 전과정 친환경성 강화 Frame’을 구축하였습니다.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사용/폐기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총 33 개의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약, 자원 순환, 오염물질 관리 등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소를 포괄합니다. 두산퓨얼셀은 이 자체 Frame 을 기반으로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는 연구/개발 등 6 개 부서에서 기술개발 및 적용과 실행,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제 추진 실적은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되며, 본부 주관으로 반기 1 회, ESG 팀 주관으로 반기 1 회를 주기로 ESG 협의회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계획 및 실적은 CEO 를 의장으로 하는 ESG 위원회에 연 1 회 이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원료/소재의 선택에 친환경성을 고려하고 생산, 사용, 폐기 각각의 단계에서 소비되는 자원과 에너지 사용이 절감되도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재활용/재사용/재제도가 용이하도록 설계합니다. 특히, 2024 년 4 분기 이후 양산될 5CSA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 전력 생산 효율이 25% 향상되어 사용 단계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설비 효율 최적화,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사내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 관리, 폐기물의 재활용 극대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폐기 단계에서는 납품된 연료전지 주기기에 대하여 20 년 간의 장기유지보수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전문 서비스테크니션이 상주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수명이 다한 부품은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순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 수행 성과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제품의 EU Taxonomy 와 K-Taxonomy 적격 여부 및 LCA 결과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ESG 관리 체계 구축]



두산퓨얼셀은 EU 공급망 실사법 실시에 대비하고 강화되는 공급망 관리 추세를 감안하여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실행 방안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협력사의 리스크로 야기되는 부품 조달 차질과 이로 인한 생산 일정 및 납기의 지연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매년 전체 협력사 가운데 Business 영향과 구매 리스크를 평가하여 ESG 리스크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ESG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p>인식제고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경영의 개념 EU CSDDD에 따른 공급망 ESG 방법 ISSB-KSSB 등 ESG 정보 공시 의무화 CBAM, 중처법 등 각종 ESG 규제 사항 진단 Process 안내 	<p>온라인 자가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가중치 구성 시 맞춤형 모델 제공 가능 보고서 제공으로 ESG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 원정사는 K-SRM확인 + Raw Data 제공 	<p>실사진단 (DB 교차검증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크리스트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DB 검증 및 예일-전화 인터뷰로 비대면 실사 현장실사 시 현행파악 외에 문항/항목의 의의 설명으로 이해도 향상 	<p>현장현실링 (실사진단 현장검증 및 ESG개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에서 체크리스트 작성-증빙 자료 업로드 DB검증 및 방문 인터뷰 후 사전진단 업종특성-이행가능 수준 고려한 개선과 제 및 가이드 라인 제공 사후진단으로 개선 현황 파악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시 지원 	<p>통합결과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목별 수준진단 결과, 과제선정 및 개선현황 세부분석 전체 Data와의 업체 수준 비교 실제 Data 분석 및 향후 전망치 제공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기업개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자가진단 항목	4개 문항	34개 문항	47개 문항	8개 문항
현장실사 항목	28개 문항	92개 문항	85개 문항	10개 문항
항목 내역	기업개요 일반	에너지/자원 신고대상 확인 환경경영 기후변화 청정생산	인권관리 복지제도 근로환경 채용 산업안전 보안 사회공헌 협력사 분쟁광물	준법경영 ESG정보공시

<공급망 ESG 평가 항목>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ESG 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협력사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기업개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가 진단 및 실사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 및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의 배경 및 진단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며, 협력사 현장방문을 통해서 자가진단 내용을 검증하고, ESG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VOC 를 수시로 청취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VOC 채널을 마련했으며, 정기적으로 협력사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위험 협력사로 분류된 협력사의 개선활동 지원 프로그램 및 최종 평가 결과를 구매 제도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회 공헌 활동 체계 및 추진 방향]



두산퓨얼셀은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두산’이라는 그룹사 공동 지향점에 맞춰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합니다. 미래 경쟁력,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사람의 성장’, ‘지역사회 기여’, ‘보유 역량 활용’이라는 세 가지의 주요 전략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사례① 장애인 체육 선수단 운영

두산퓨얼셀은 사회공헌 활동 체계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인재양성과 고용창출을 통한 ‘사람의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 창출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전북 장애인체육회와 협약을 맺고 2022 년 12 월부터 장애인 선수를 고용하여 장애인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중증 7 명, 경증 3 명의 장애인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직접 고용하고 급여 및 각종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선수들은 양궁, 볼링, 보치아, 당구, 파크골프, 휠체어테니스, 탁구, 핸드사이클의 총 8 가지 종목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제 44 회 장애인전국체전에서는 양궁과 핸드사이클에서 각각 금메달을, 보치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두산퓨얼셀은 장애인 체육 선수 고용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우수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임직원 다양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선수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속 선수들을 향한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사례② 수소에너지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연료전지 전문기업인 두산퓨얼셀은 2023 년부터 수소에너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진 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소산업과 연료전지 제품 및 현장 직무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수소에너지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 년 4 월에는 인천시 · 인천시교육청 · 한국서부발전과 수소인재 양성을 위한 MOU 를 체결하고 매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H2Dream 수소에너지 진로탐구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연료전지 제품이 설치 운영 중인 발전사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실제 발전 현장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고, 에너지 관련 분야 진로 설계를 지원하여 향후 체계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대상으로는 상/하반기 각각 'H2Dream 두산퓨얼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소 실제 연료전지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익산공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연료전지 제작 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IV.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용
	0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 채용 선순환 운영 - 지역사회 복지 증진 프로그램 익산 '다이어로움 밥차' 운영비 기부 및 정기 봉사활동 실시 - 아동복지시설 '그림틀' 45개소 노후 보일러 및 가스레인지 교체 지원 - 한국장애인정보화사업소에 유류 사무기기 기부
	0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의 보전과 웰빙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 제공, 출산휴가 제공 및 출산축하금 지급 - 유해 화학물질의 구매부터 폐기단계까지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ISO 45001 인증 획득 -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
	0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소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H2Dream 수소에너지 진로탐구 클래스 운영
	0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 제공, 출산휴가 제공 및 출산축하금 지급 - 광고 연구소 Women's Lounge 조성
	0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발생량 감축을 위한 공평별 용수 사용량 관리 시스템 구축
	0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S(탄소포집 기술) 연계형 PAFS 시스템 설계 완료 - 고효율 수소모터(SCSA PAFS) 및 차세대 촉매 개발을 통한 제품 발전 효율 증대 -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시스템 개발 및 검증 평가 운전 완료 -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사업모델 확대 - 수소모빌리티 시장 확장을 위해 친환경 상용차 회사인 HyAxion Motors를 자회사로 편입 - 선박용 SOFC 연료전지 개발 및 핵심부품(Cell Stack) 환경테스트 통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용
	08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육선수 8명을 고용하여 장애인체육선수단 운영 -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 제공, 출산휴가 제공 및 출산축하금 지급 -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리스크 완화 조치 시행 - 부패공산화를 중대해 통한 국내 산업 기여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복지 증진 프로그램 익산 '다이어로움 밥차' 운영비 기부 및 정기 봉사활동 실시 -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직급 체계 변화(신임/수석 체계)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설비 재이용 및 폐기물 처리 신규 업체 발굴을 통한 폐기물 감축 활동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인식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전과정 친환경성 감사 체계 구축 - 주요 부품의 사용/유지 및 폐기 단계에서 자사용/재제조를 통한 자원순환 실행 - Carbon소재 분리관 대체를 위한 금속분리관 개발 - 주요 설비 재이용 및 폐기물 처리 신규 업체 발굴을 통한 폐기물 감축 활동 - OEM물질 및 화학물질 사용량 감축을 위하여 Non-RCF 소재 연구개발 - 사무공간에서 발생하는 커피비բ 재활용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 Net-zero 선언 -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감축 활동 이행으로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320% 달성 - TCFD 세부 요구 사항 정보 공개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 수립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워킹플랜지 진행 및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서울 중랑천과 익산시 유전생태습지 공원에 관육 식재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거래준수 편람 제작 - 전 임직원대상 윤리경영 서약서 징구 - 인권이슈 제보 채널 및 윤리경영 관련 신고 및 제보를 할 수 있는 Help desk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부신고제도 운영 -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 인권 관련 고충처리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LG전자, VR·AR·로봇으로 안전 교육...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LG 전자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산업용 로봇 등을 활용한 체험형 공간에서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하고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 센터 ‘세이프티온(SAFETY ON)’을 열어 사내 직원, 협력사, 지역 중소 기업 등에 안전 교육을 제공함.
- 김성우 LG 전자 H&A 안전환경/지원담당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함.

이데일리

2. 바다엔 잘피 숲, 도시엔 꿀벌... 생태계 복원에 진심인 KB금융



- KB 금융은 기후위기 시대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잘피(Sea Grass) 숲 살리기에 앞장서며 ‘바다숲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도시양봉장 조성 사업도 대표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 중임.
- KB 금융그룹은 이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획득 등 적극적인 생태계 복원 활동을 하고 있음.

한국일보

3. SK, 그룹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이사회 역할 '업무 관리·감독'으로 재정의



- SK 그룹이 이사회 역할의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강화하는 '이사회 2.0'을 추진, 그룹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예정임.
- SK 관계자는 "SK 그룹은 이사회 2.0 추진 등을 통해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힘.

ESG 경제

4. 현대차, 성평등·다양성 존중 조직문화 강화한다



- 현대자동차가 유엔여성기구와 함께 조직 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함.
- 김혜인 현대차 HR 본부장은 현대차의 글로벌 네트워크 내 다양성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강조하며 "현대자동차는 모든 임직원이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전함.

이데일리

5. 수자원공사, 국내 최초 RE100 달성 눈앞 '탄소중립 실현'



- 수자원공사는 2021년 국내 공기업 최초 RE100 가입 3년만에 달성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을 목표로 온실가스 저감 방안 이행에 앞장서고 있음.
- 오은정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본부장은 "RE100 규제 등 녹색 무역장벽에도 국내 재생에너지는 수출기업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이라며 "RE100 달성의 핵심인 물에너지 분야의 전문 역량과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 직접전력거래 방식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국가 탄소 경제 전환과 핵심 수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함.

뉴스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10 월 16 일부터 11 월 26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4 개사입니다.

신규가입

- 고려아연
- (주)한일로지스틱스
- 주식회사 신트로밸리
- PI 첨단소재 주식회사

재가입

- 한국자유총연맹

2. CoP/CoE 제출회원

10 월 16 일부터 11 월 26 일까지 총 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CoE (총 4 개)

- 한국자유총연맹
- 한국산업단지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주택금융공사

CoP (총 3 개)

- (주)유스임팩트
-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
- 가온그룹

※ 2024 년도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미제출한 회원사는 8 월 6 일 자로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2024 년 12 월 31 일 이내에 제출 시 “Active” 상태로 회복됩니다. CoP 미제출 회원사는 2025 년 1 월 1 일 자로 “제명(Delisted)”되오니, 제출 기한 내에 이행보고서(CoP)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이내에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ed)”됩니다.

※ CoP/CoE 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4. UNGC 한국협회 가입 안내

2007년 9월에 설립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다양한 심포지엄,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및 기업 지속가능성/ESG 관련 연구·조사, 정책 제안, 네트워킹과 대화의 장 마련, ESG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하여 회원사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행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